

천장 두드리는 혁신성장 기업들… 첨단산업 중심 상장 ↑

코스닥 1000P 시대

〈下〉 코스닥시장 체질전환

지난해 103개 기업 코스닥 상장
25개사 기술특례기업으로 입성
모바일·첨단소재 등 업종 다양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한 단계 앞당겨졌다. 중소·벤처 기업에 자금조달 통로를 넓혀준다는 취지로 개설된 코스닥시장도 마찬가지다. 바이오·의료,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투자가 늘며 코스닥 지수가 지난 26일 장중 최초로 1000포인트를 넘어서는 등 기대감이 생기고 있다. 혁신성장 기업들의 비중이 늘며 체질전환이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헬스케어 끌고 미디어·반도체 받고

코스닥 '1000P 시대'의 주역은 건강관리(헬스케어) 업종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증시 폭락의 정점이었던 지난해 3월 19일부터 지수가 사상 최초로 1000을 넘어섰던 지난 1월 26일까지 반등 기여도를 살펴보면 건강관리가 약 32%로 가장 높았다.

코로나19로 제약·바이오 관련주가 주목받으며 관련 업종이 강세를 보인 덕이다. 반도체가 12%, 소프트웨어가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지난 달 2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온라인 2021년 새년 출입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손 이사장은 임기 중 최우선 추진 분야로 혁신성장기업을 자본시장에 불러넣는 것이라 말했다. /뉴스1

10%, IT하드웨어가 10%, 디스플레이가 6% 순으로 뒤를 이었다. 제약·바이오 업종의 코스닥 시가총액 비중도 2019년 말 28.1%에서 현재 약 34%까지 늘었다.

건강관리 기업들이 최근엔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반도체와 정보기술(IT) 업종이 바통을 받을 전망이다. 코스닥지수의 흐름은 계속될 것이라 분석이 나온다.

강대석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닥도 닷컴버블 이후 새로운 영역에 진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코스닥 상승장의 주

역이었던 건강관리 업종이 상대적으로 부진하며 최근 오름세가 코스피보다 덜했다"면서도 "반도체 등 IT와 미디어 업종의 강세로 인해 코스닥지수의 네 자릿수 안착 시도는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산업육성책 효과…혁신기업 문턱 낮춘다

한국거래소(KRX)의 산업육성책도 효과를 나타냈다. 지난해의 경우 총 103개 기업이 코스닥 신규 상장사로 이름을 올렸다. 스펙(SPAC·기업인수목적회사)을 제외하면 84사를 기록했다. 기술특례기업으로 25개사가 증시에 입

〈코스닥시장 업종별 상승 비중〉

업종명	비중 (20.3.19~21.1.26)
건강관리	32%
반도체	12%
소프트웨어	10%
IT하드웨어	10%
디스플레이	6%
미디어·교육	5%
IT가전	4.5%
기계	3%
화학	3%
화학품, 의류, 완구	3%

/한국거래소, 유진투자증권

성했는데 이는 기술특례 상장제도도 도입된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무엇보다 제약·바이오와 무관한 기업이 8곳이나 상장한 점이 눈길을 끌었다. 기술특례 중에서도 첨단산업분야 중심의 상장이 늘어났다는 평가다. 나노소재 3사, 반도체장비 1사, 안전장비 1사 등 인공지능(AI),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로봇솔루션 산업분야가 시장에 진입했다.

이외에 2019년 단 1곳에 불과했던 소부장 상장기업이 16곳을 기록한 점, 인공지능(AI)기술을 핵심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이 2019년 5곳에 이어 지난해 6곳이 상장한 점 등이 눈여겨볼 점으로

지목됐다.

올해도 이러한 분위기는 이어지고 있다. '상장 비수기'로 통했던 예년의 1월과 다르게 28일까지 총 4개의 일반 기업이 상장했다. 엔비티와 선진뷰티사이언스, 모비릭스와 씨앤투스성린이 새로 증시에 발을 들였다. 이중 화장품 원료 제조업체인 선진뷰티사이언스를 제외하면 모두 언택트(비대면) 산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모바일 서비스, 모바일 게임, 첨단소재 필터 등 업종도 다양하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의지를 불태우는 중이다. 손 이사장은 최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임기 중 가장 우선 추진할 분야가 무엇이나는 질문에 "혁신성장 기업을 자본시장에 불러넣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국판 뉴딜, 4차산업 혁명 등 신경제를 주도할 미래 성장기업들을 자본시장을 통해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상장제도를 미래 성장성 중심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혁신적인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에 한해 시장 입성 문턱을 낮추겠다는 얘기도.

거래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성장잠재력과 기술력을 보유한 다양한 분야의 혁신기업이 상장을 통해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코스닥시장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태화 기자 alvin@metroseoul.co.kr

금융위, 공모펀드에 성과연동 보수제 도입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 마련
통합 온라인 자문플랫폼 도입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성과연동형 운용보수제를 도입한다. 또 통합 온라인 자문플랫폼을 마련하고, 투자자 수요가 큰 외화수요 머니마켓펀드(MMF), 상장지수펀드(ETF), 실물펀드 등을 도입해 상품을 다양화 한다. 초저금리 금융환경에서 비교적 덜 위험한 대중적 자산운용 통로의 대표 격인 공모펀드가 장기간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하는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9일 금융발전심의회 자본시장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공모펀드 규모는 지난 2010년 198조6000억원에서 2015년 213조8000억원, 2020년 274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그 중 공모펀드 법인 자금 운용처로 주로 쓰이는 머니마켓펀드(MMF)를 제외하면 2010년 133조6000억원, 2015년 127조7000억원, 2020년 172조6000억원이다.

다만 공모펀드는 판매 잔고기준으로 한때 80%를 웃돌던 개인비중이 현재 40% 안팎 수준이다. 개인비중이 정점에 이르렀던 2008년 2008년 9월 말 82%(187조원)에서 지난해 9월 말엔 딱 절반 수준인 41%(86조원)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투자자가 믿고 투자할 수 있도록 성과연동형 운용보수제를 추가한다.

성과연동형 운용보수제는 투자 상품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수익을 낼 경우 운용사 또는 판매사가 정해진 비율의 성과 보수를 받고, 정해진 수준에 못 미치거나 손실을 본 경우 수수료를 물지 않거나 최소한의 수수료만 내는 방식이다. 단순히 팔고나면 그만인 행태가 사라지고 펀드수익률 제고에 더 큰 노력을 기울이게 하겠다는 설명이다.

소형운용사의 공모펀드 자기재산투자(시딩투자) 부담도 줄인다. 시딩투자는 신규공모 펀드등록시 운용사 등의 고유자산을 2억원, 3년이상 투자하는 제도다. 소형 운용사(수탁조1조원 이하)의 경우 투자금 분할납입을 허용한다.

온라인 판매채널도 확대한다. 통합 온라인 자문플랫폼을 도입(코스콤)하고 자문사의 자문대상펀드를 기존 2~3개 증권사 상품에서 확대한다. 온라인

펀드슈퍼마켓·직판 채널의 기능을 강화해 모바일 온라인 펀드가입의 편의성도 제고한다.

이 밖에도 다양한 공모펀드 출현도 유도한다. 현재 투자자수요가 큰 MMF와 ETF, 실물펀드의 약 97%는 사모펀드로 운용중이다.

앞으로는 수출기업 등의 외화운용 지원을 위해 외화표시 MMF를 도입하고, 주식형 액티브ETF의 경우 해외의 제도개선 경과에 따라 추가적인 개선 여부를 검토한다.

펀드재산의 일정비율한도로 투자자에게 주기적 환매기회를 제공하는 환매금지형 펀드(가칭, 기간환급펀드)와 투자대상·펀드종류의 변경이 가능한 펀드 도입도 추진한다.

김정각 금융위 자본정책관은 "합리적인 수익률, 비용을 제공함으로써 투자자가 믿고 투자할 수 있도록 운용사·판매채널·펀드 상품을 개선해 나가겠다"며 "투자자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투자자 보호제도 등 투자자 지원 인프라 또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법개정사항에 대해서는 4월까지 입법예고하고, 시딩투자, 판매보수수요 선택 등의 일부과제는 행정지도 및 업계 자율추진으로 우선 시행한다. 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사항은 올해 3분기까지 개정 완료를 목표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겪일줄 모르는 코로나… 세계경제 주춤

한은 해외경제포커스

美, 유로, 아세안 경제회복 더디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 경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성장세가 약화됐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미국과 유로 지역 모두 회복세가 주춤한 모습이다.

한국은행이 31일 발표한 해외경제포커스 '최근 해외경제 동향'에 따르면 미국은 코로나19 재확산 심화로 소매판매가 지난해 12월까지 3개월 연속 감소했다. 이와 함께 고용 역시 12월 실업률이 6.7%로 전월 수준에 머무르고, 최근 주간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도 증가했다.

한은은 "코로나19 대응 부양책이 연초에 집행되는 가운데 바이든 정부는 신규 부양책을 상반기 중 추진할 계획"이라며 "향후 코로나19의 영향이 당분간 지속되겠지만 백신 보급과 대규모 재정부양책에 힘입어 회복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로지역 경제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방역조치가 강화되면서 소매판매와 서비스 생산을 중심으로 개선흐름이 약화됐다. 11월 소매판매는 전기 대비 -6.1%로 큰 폭으로 감소했고, 서비스업 PMI는 기준치를 크게 밑돌았다.

한은은 "유럽 각국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입국제한을 강화했고 독일, 이탈리아 등은 방역조치를 연장했다"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느리게 진행되는 데다 독일 등 일부 국가는 이동제한조치를 확대·연장하고 있어 경

기 회복이 더딜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EU 회원국은 지난해 12월 27일 백신 접종을 시작해 1월 25일 기준 인구 100명당 2.1명의 접종률을 기록했다.

일본경제는 생산과 소비가 모두 감소하는 등 미약한 경기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산업생산이 감소로 돌아섰고, 수출도 두 달 연속 줄었다.

반면 중국경제는 내수와 수출 모두 견조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기업 심리지수(PMI)도 제조업과 서비스업, 건설업 모두 3월 이후 기준치(50)를 웃돌았다.

한은은 "1월 들어 허베이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늘어나며 겨울철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고조됐다"면서도 "대면 서비스업 회복 흐름이 다소 둔화될 수 있으나 이동제한 조치가 일부 지역에 국한된 만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아세안 5개국도 수출 회복에도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내수 부진이 이어지며 개선흐름이 더디다. 소매판매는 베트남을 제외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대부분이 감소세를 나타냈다.

1월 중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는 50달러 중반 수준으로 상승했다. 사우디의 자발적 감산을 비롯해 바이든 정부의 추가 경기부양 기대, 원유재고 감소 등이 영향을 미쳤다.

한은은 "향후 국제유가는 코로나19 전 개 및 백신 보급상황과 주요 산유국의 생산 규모 등에 따라 당분간 등락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상미 기자 smahn@